



보도자료

[2010. 9. 17]

한선교의원실

www.hansunkyo.com

Tel 788-2205 Fax788-3443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요청 기각된 민홍규,
문화재청 은폐!**

2007 10

2008 4 1 신청 기각

정당성 및 전통적 제작방법의 고증 불분명 사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2007 10 1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을 신청했던 민홍규는 전승계보가 불분명해 그 정당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며, 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1 그 신청을 기각당한 바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민홍규가 국새제작의 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충아우르는 모든 심사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 당시 행정자치부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닌 사람을 국새제작단장에 임명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음이 분명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2008 1 1 국새를 정부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민홍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기는 커녕, 그해 4 1 중요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당한 사실을 문화재청은 묵인한 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민홍규가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후 정당성, 전통적 제작방법 등의 명확한 고증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 당한 사실이 조기에 밝혀졌더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국권의 상징인 국새관련 논란도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33 9 1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의장품 제작단으로 참여하였는데 국새제작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나라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새 제작에 참여했다면, 단장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제작단으로서 참여한 공동작업에서, 충분한 검토와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세제작단에 참여한 이들 중요무형문화재 9 1에게 매년 지원되는 문화재 지원금은 많게
 는 6,740 (1) 1,200 2009 1 한해에만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만도
 무려 2 7 .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민홍규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니었고 심지어
 국세 제작과정 중에 옥새전각장을 신청하고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왔다.”

한의원은 “ 아울러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 인승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 그들에게 단순한 기능의 보존과 전승만을 바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
 니라, 문화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국세제작 뿐 아니라 나라
 의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때 그들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참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 >

(2009)

구분	성명	담당분야	비고	문화재 지원금
국세 의장품 분야	김희진	매듭인근	중요무형문화재 22 ()	6740 1원
	정수화	배안상, 국세합장	중요무형문화재 113 ()	3190 1원
	구혜자	복건	중요무형문화재 인정예고()	-
	한상수	복건	중요무형문화재 80 ()	1560 1원
	김덕환	복건	중요무형문화재 119 ()	2260 1원
	김극천	인के	중요무형문화재 64 ()	29,398 1원
	류행영	인के, 호갑	중요무형문화재 117 ()	1200 1원
	설석철	호갑	중요무형문화재 55 ()	2,940 1원
	박문열	자물쇠	중요무형문화재 64 ()	23,265 1원
황해봉	자물쇠, 가죽주머니	중요무형문화재 116 ()	26,245 1원	
합 계			257,808 1원	

(:)